

돌아온 배당株의 계절... “배당 여력 줄었지만 수익률 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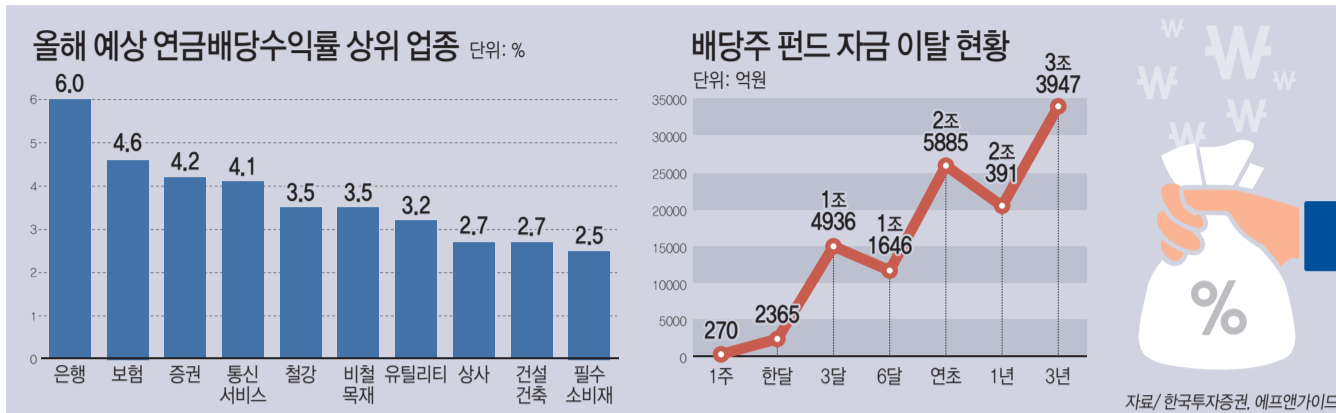
예년과 달리 고배당주 관심 ↓
성장주 강세에 투자자 외면
연말 배당에 기대감은 여전

실적 타격으로 배당수익률 감소가 예상되며 저조한 흥행을 이어가는 배당주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 11월을 전후해 고배당주가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일 것이라 분석이 나오면서다. 올해가 배당주 투자자에게 가장 불리한 시기가 될 수 있다는 지난 분기까지의 시장 평가도 이젠 뒤바뀐 모양새다. 이젠 중장기 관점에서 배당주 매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연말 배당을 받기 위해선 배당락일 하루 전까지 주주 명부에 이름을 올려야 한다. 올해는 12월 결산법인의 배당락일인 12월 27일까지 주식을 매수하면 된다.

◆찬 바람 불는데...배당주 바람 불까

매년 9~10월은 배당주의 계절로 불린다. 단기적 관점에서 연말 배당을 겨냥해 들어오는 계절성 투자자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상황은 다르다. 예년과 다르게 고배당주를 향한 관심이 덜한 분위기다. 지난 3월 중순부터 시작된 반



등장에서 성장주 강세를 본 투자자들에게 배당 수익이 성에 차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 횡보장세에서 주로 투자하는 배당주가 매력 요소를 잃었다는 분석이다.

이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15일 펀드 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배당주 펀드에서 최근 한 달 동안 2365억원이 유출됐다. 3개월로 범위를 넓히면 1조 4936억원의 자금이 빠져나갔다. 3년 동안 빠진 총금액 3조 3947억원의 절반 수준이 최근 3개월 새 빠진 셈이다. 투자금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배당 포기를 선언한 기업이 늘어난 것도 고배당 종목에 대한 관

심을 떨어뜨린 요인으로 지목된다. 올해 국내 증시 상장사의 전체 중간(6월) 배당금은 2조 9200억원으로 지난해(3조 7100억원)에 비해 약 21% 감소했다. 에쓰오일, SK이노베이션, 현대차를 비롯한 대표적인 고배당주로 꼽혔던 정유·화학 관련 종목들이 배당 수익을 중단한 영향이다.

연말 배당 역시 타격이 예상된다. 에프앤가이드는 163개 코스피 상장사의 올 한 해 배당금이 지난해(25조 8858억원)보다 1.3% 줄어든 25조 5365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배당수익률은 그대로, 배당주 펀드 대안

그래도 전문가들은 지금이 배당주

를 들여다볼 적기라고 권한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강력한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는 데다 미국 대선과 성장주의 밸류에이션(가치대비 주가수준) 부담으로 불안정한 단기 시장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배당액 감소에도 배당수익률 측면에선 오히려 긍정적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만큼 주가가 오르지 못해서다. 임지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연말 배당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며 “불확실한 여건 속에 배당 여력은 줄었지만 배당주 주가 부진이 이어지며 배당 수익률은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코스피 고배당50 기준 올해 예상 현금배당금은 지난해보다 20% 줄었지만 주가도 12% 하락해 현금배당수익률 3.5%를 유지중이다. 올해 예상 현금배당수익률 상위 업종으론 은행이 6.0%로 가장 높았다. 보험(4.6%), 증권(4.2%), 통신서비스(4.1%), 철강(3.5%), 비철·목재(3.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고배당주에 대한 직접투자에서 자신이 없다면 배당주 펀드 역시 간접 상품으로 유효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배당주 펀드는 고배당 주식을 편입한 후 예상 수익률 이상으로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매도해 수익을 얻는다. 반대로 주가가 오르지 않을 경우 배당시기에 예상배당금을 타는 방식으로 손실을 최소화한다.

단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할 것이라면 배당수익률뿐 아니라 성장성까지 고려하라는 조언이다. 염동찬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은 11월을 전후해 배당주가 강세를 보이는 계절성이 있다”며 “단순히 배당수익률이 높은 업종이 아니라 배당과 성장성을 모두 갖춘 기업이 주목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태하 기자 alvin@metroseoul.co.kr

CJ-네이버, 지분교환 이어 전략적 제휴

네이버, 주식교환 형태 CJ 투자 고려
이달 중 협의 통해 이사회 최종 결정

CJ그룹과 네이버가 만나면서 유통과 콘텐츠 등 다방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CJ그룹과 네이버는 두 회사의 강점을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자는 취지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내 1위 포털 사업자와 택배시장 점유율 1위 회사가 만나는 만큼 업계의 이목이 주목되고 있다.

네이버는 주식 교환의 형태로 CJ그룹 산하 CJ대한통운, CJ ENM, 스튜디오드래곤에 투자하는 방안을 고려중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일정이나 주식 교환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업계는 CJ대한통운 지분 가운데 자사주 일부를 네이버가 주식 스왑 형태로 맞교환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CJ그룹은 이르면 이달 중으로 네이버와 협의를 마치고 이사회에서 최종적

으로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네이버와 CJ대한통운이 풀필먼트를 통해 물류분야에서도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풀필먼트 서비스란 물류업체가 판매업체의 위탁을 받아 배송과 보관, 재고관리, 교환·환불 등 모든 과정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빠른 배송이 화두로 떠오른 쇼핑 시장에서는 자정까지 주문하면 다음 날 받을 수 있는 풀필먼트가 핵심 경쟁력으로 통한다. 또한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를 선호하는 문화가 생기면서 이커머스 시장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 4월 CJ대한통운과 손잡고 풀필먼트 서비스를 출범하고,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를 통해 판매되는 LG생활건강 상품을 소비자에게 24시간 내 배송해주는 풀필먼트 서비스를 시작했다. 양사 간 전략적 제휴가 이뤄지면 CJ대한통운은 수십만개 달하는 판매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네이버는 안정적인 배송 서비스로 윈윈 효과를 얻게 된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내년 금융권 자산성장, 코로나 이전 회복”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대손비용 증가에 수익성 하락 예측 “정부 시책 끝나는 내년 6월 대비해야”

내년 금융권의 자산성장 수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대손비용 증가로 수익성은 둔화할 수 있어,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기간, 각종 규제비용 유연화 조치가 일당락 되는 내년 6월 이후를 대비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15일 ‘2021년 금융산업 전망’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미뤄진 리스크 확산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우선 내년 금융권의 자산성장장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경제주체의 자금수요는 계속될 수 있지만 규제 강화로 가계대출은 증가폭이 둔화되고, 기업대출 증가는 전 업권에 걸쳐 지속할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소는 은행업의 경우 순이자마진(NIM)의 하락세는 진정될 수 있지만 비이자부문의 회복 부진과 대손비용 증가로 수익성은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기간, 각종 규제비용 유연화 조치 등으로 건전성 지표 일부가 착시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추후 잠재부실로 인해 수익성이 하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연구소는 취약계층에 자금을 지원한 비은행권의 부실과 경기민감업종을 중심으로 한 개인사업자 대출 부실을 우려했다.

백종호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인



2021년 금융산업 전망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한 정부정책이 마무리되는 내년 6월 이후를 대비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며 “은행의 대손비용 증가도 문제지만 제2금융권의 부실화 가능성은 더 크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비은행권 중 증권, 보험, 자산운용업의 수익성이 소폭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증권업은 직접투자 선호에 따른 브로커리지(주식중개) 부문 성장으로 수익성이 개선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브로커리지는 주식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것으로, 증권사는 중개역할로 수수료 수익이 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자산운용업은 주식형 펀드 등 전통적인 투자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약화됨에도 불구하고 대체투자 중심의 성장으로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업은 초저금리 현상에 따른 이차역마진이 심화되고 있지만 변액보험 관련 준비금 적립 부담 완화, 자동차보험 및 실손보험의 손해를 하향 안정화 등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소액단기보험 등 신사업 부문의 점진적 확대는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고 전망했다.

연구소는 코로나19에 따라 모바일 플랫폼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금융혁신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플랫폼을 보유한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이 더욱 가속화되고 스몰라이선스 도입, 인가단위 세분화 등을 통해 핀테크 뿐만 아니라 소규모 특화 금융회사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경쟁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연구소는 빅테크의 금융업 진입에 대한 규제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연구소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3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인 토스뱅크가 영업을 개시하면서 은행권 내 경쟁 심화와 함께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출시를 기대해 볼 만하다고 예상했다.

정희수 금융산업1팀장은 “내년에는 그동안 추진해온 오픈뱅킹 서비스가 마무리되면서 기존 금융회사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기존 금융회사도 혁신서비스 개발을 통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분실공고

아래와 같이 아시아나 컨트리 클럽 주중 개인 회원권을 분실하여서 공고합니다

이름 : 허윤수

회원번호 : E38-50-8670